

보도일시	배포 즉시		
배포일시	2019. 9.2.(월)	대변인실	044-203-6572
담당과	중등직업교육정책과	과장	송달용(044-203-6398)
		담당자	이진우 교육연구원 (044-203-6374) 윤강우 교육연구사 (044-203-6388) 송재봉 주무관 (044-203-6354)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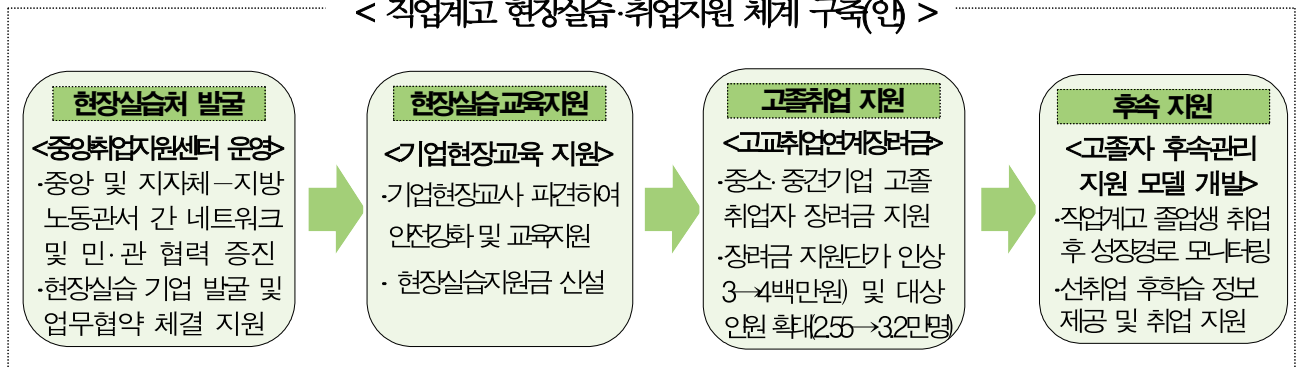
- 언론시명 / 보도일시 : 동아일보(강동웅 기자), 세계일보(이천종 기자), 한국경제(정의진 기자) / '19. 9. 2. [월]
- 제목 : [동아일보] 취업률 하락에 학생 빠져나가는 특성화고
[세계일보] “낮은 취업률에”... 서울 특성화고생, 일반고 전학 ‘러시’
[한국경제] 특성화고서 일반고로 전학 서울 을 708명..2년째 감소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-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.
 - 직업교육에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학은 감소추세*이며,
* '17년 947명에서 '18년 777명, '19년 708명(서울시교육청 발표, '19.9.1)
 - 전국적으로도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 ('16년 17.4% → '18년 18.1%) 하고 있습니다.
* (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입학생수 / 전체 입학생수):
'16년 103천명/592천명 → '18년 83천명/457천명(출처: 교육기본통계)

- 아울러 일반고에서 약13,000여명('19년)의 학생이 직업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교육부는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('19.1)하고 후속 세부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.
- 산업 및 학생수요에 부응하여 학과개편*을 지원하고,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등을 통해 학교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
- * '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→ '22년까지 약 500개 학과
- 또한 직업계고 현장실습·취업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지원해나가고 있으며 관련하여 '20년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*하였습니다.

< 직업계고 현장실습·취업지원 체계 구축안 >



* ('19년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액)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(18억원), 기업현장 교육지원(205억원),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(1,107억원),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개발(21억원) 등 총 4개 사업에 1,351억원 지원

- 앞으로도 교육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여 우수한 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공공누리

홍보표시

상업용금지

이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이진우 교육연구관(044-203-6374), 윤강우 교육연구사(044-203-6388), 송재봉 주무관(044-203-63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